

전기차/배터리산업

전기차/배터리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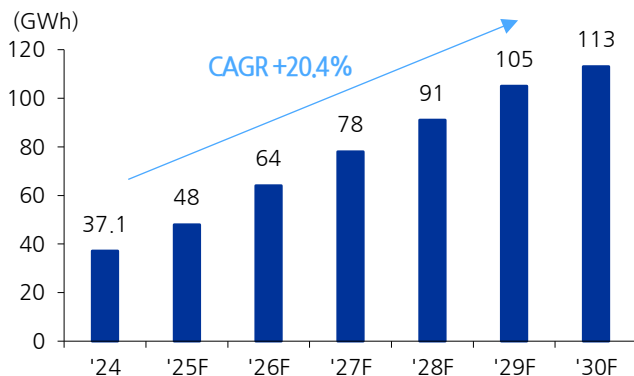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와 펀더멘탈 강화요인들의 누적 효과로 K 배터리 주가 강세 가속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수요 저변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배터리를 대체할 유일한 수단인 K 배터리의 중장기 가치는 재평가 지속될 것

K배터리 소재/부품 주가 강세 원인

ESG/그린산업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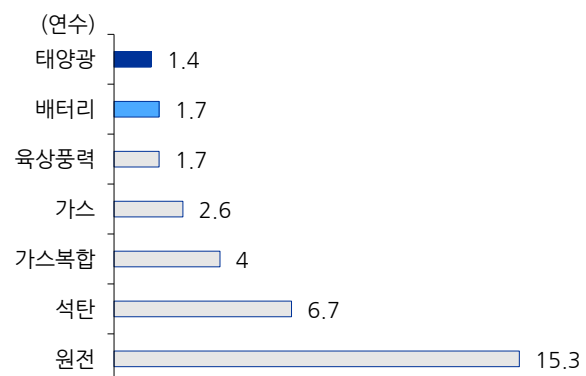
- 최근 K배터리 주가 강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 판단. 같은 소재업체들 사이에서도 코스닥 상장주들의 주가 상승이 거래소 종목들 대비 높아
- 하지만, 주가 상승의 기저에는 K배터리의 중장기 펀더멘탈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누적되어왔기 때문
- K배터리에 긍정적인 요인들로는 1) 영국, 독일 등 유럽 지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재개 2) 미국 등 글로벌 BESS 수요 확대 3) 미국의 중국 배터리에 대한 시장 진입 사실상 차단 정책 4) 미국 중간 선거 이후의 반전기차 정책 기조 약화 가능성 5) LMR, 전고체, 소듐 등 신규 배터리 소재 시장 개화 기대 6) 휴머노이드, 선박, 기차, 건설기계 등으로 교통 부문 배터리 수요 확대 7) 중국 정부의 공급과잉 조절 정책으로 인한 배터리 소재 가격 정상화 기조 8) 국내 탄소 중립산업법 도입 가능성
-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1) 유럽의 중국 전기차/배터리의 시장 침투 약화 정책의 실시 불확실성 2) K배터리의 단기 실적 개선에 시간 필요
- K배터리에게 부정적인 요인보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은 시점
- 수급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당분간 K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는 롤러코스트식으로 움직일 것으로 판단.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하는 방식 권고. 글로벌 배터리 수요는 전기차에서 다른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안보와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국을 대체할 유의미한 수단은 K배터리. 중장기 관점에서 판단해야 가치 평가 합리적 도출 가능
- 미국 BESS 확대, LMR, 전고체, 소듐 관련 추가 수혜, 휴머노이드, 선박, 기차향 신규 배터리 수요 관련주의 주가 상승 폭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

미국 BESS 시장 전망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미국의 발전원별 설치 기간



자료: SEIA,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도표 1. 미국 신차 모델별 배터리 공급 업체

모델	예상 배터리 공급 업체	비고
Acura RSX	LGES	Honda 합작사(L-H Battery)
BMW Ix3	AESC	
Chevrolet Bolt	CATL&LGES	
Ferrari Elettrica	SK On	파우치 122kwh NCM
Genesis GV60 Magma	SK On&LGES	
Genseis GV90 EV	SDI	각형 113.2kwh
Honda 0 Series SUV	LGES	Honda 합작사(L-H Battery)
Honda 0 Series Saloon	LGES	Honda 합작사(L-H Battery)
Hyundai Ioniq 6N	SK On&LGES	
Jaguar Type 00	Agratas	
Jeep Grand Wagoneer EREV	LGES&SDI	
Jeep Recon	SDI	각형 100.5kwh
Kia EV3	LGES	파우치 58.3/81.4kwh
Land Rover Range Rover EV	Agratas	각형 117kwh
Lexus ES	LGES	
Lucid Earth	Panasonic	
Mercedes-AMG EV	LGES	
Mercedes-Benz CLA	LGES	
Mercedes-Benz GLC	LGES	
Mercedes-Benz Van	LGES/SK On	
Mistubishi Lancer EV	Unknown	
Polestar 5	SK On	112kwh NCM
Porsche Cayenne	LGES	113 kwh NCMA
Ram 1500 REV	LGES	NextStar Energy
Rivian R2	LGES	4695 원통형 NCMA
Slate Truck	SK On	하이니켈 NCM
Sony-Honda Mobility Afeela1	LGES	Honda 합작사(L-H Battery)
Subaru Trailseeker	Panasonic	2170 원통형 74.7kwh
Subaru Uncharted	Panasonic	
Toyota bz Woodland	LGES&PPES	
Toyota C-HR	LGES&PPES	
Volvo EX60	SK On&AESC	

자료: InsideEVs,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도표 2.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천대)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북미 전기차 판매량	1,042	1,621	1,808	1,733	1,636	1,887	2,247	2,804	3,596
미국 전기차 판매량	918	1,436	1,570	1,491	1,387	1,600	1,906	2,386	3,086
YoY(%)	51.2	56.3	9.3	(5.0)	(7.0)	15.4	19.1	25.2	29.3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6.7	9.3	9.9	9.2	8.3	9.4	11.0	13.5	17.2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124	185	238	242	249	287	341	417	510
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	6,234	8,497	11,558	14,636	17,208	19,675	22,188	24,176	25,830
중국 전기차 판매량	5,924	8,095	11,156	14,125	16,576	18,897	21,229	23,000	24,384
YoY(%)	83.7	36.6	37.8	26.6	17.4	14.0	12.3	8.3	6.0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22.1	26.9	36.0	44.2	50.4	55.8	60.9	64.0	65.9
일본 전기차 판매량	59	89	60	54	62	76	93	114	139
YoY(%)	39.4	50.5	(31.9)	(10.0)	13.3	23.8	22.6	22.4	21.8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1.3	1.9	1.3	1.1	1.2	1.5	1.8	2.2	2.6
기타 아시아 총합	501	628	683	914	1,139	1,403	1,730	2,122	2,612
유럽 전기차 판매량	2,602	3,010	2,945	3,747	4,514	5,572	6,318	7,376	8,747
YoY(%)	15.1	15.6	(2.1)	27.2	20.5	23.4	13.4	16.7	18.6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22.3	23.2	22.9	28.7	33.9	41.1	45.7	52.3	60.8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213	562	1,313	1,680	2,100	2,583	3,100	3,658	4,280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79,475	87,242	89,860	92,556	95,332	97,239	99,184	101,167	103,191
YoY(%)	(1.1)	8.0	3.0	3.0	3.0	2.0	2.0	2.0	2.0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0,091	13,689	17,623	21,796	25,458	29,717	33,853	38,013	42,453
YoY(%)	55.0	35.7	28.7	23.7	16.8	16.7	13.9	12.3	11.7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12.7	15.7	19.6	23.5	26.7	30.6	34.1	37.6	41.1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8%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2%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12.31 기준)